

태양광산업 '청신호'... 연구센터 짓고 中 제품 반덤핑 관세

산업부, 대전서 센터 준공식 진행
100MW급 연구용 시제품 생산시설
美 정책에 국내기업 이익 증가 예상
IRA 보조금도 긍정적 영향될 듯

국내 태양광 산업이 중국의 저가 물량 공세와 정부 태양광 정책 축소 등으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그러나 추가적인 정부의 지원과 미국이 중국산 태양광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검토를 진행함에 따라 업계는 태양광 산업의 재기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달 27일 '태양광기업 공동활용 연구센터' 준공식을 진행했다. 해당 센터는 태양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 유일의 100MW(메가와트)급 태양광 연구용 시제품 생산시설을 갖췄다.

산업부는 국내 태양광산업 경쟁력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개발제품의 양산 전 검증시설이 절실하다는 기업들의



태양광 패널

/픽셀스

청을 반영해 대전광역시, 에너지기술연구원과 공동 투자로 대전에 동 연구센터를 구축했다. 친환경에너지 분야에서 관심이 밀려 무너져 가는 태양광 산업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 나선 것이다.

앞서 태양광 기업들은 부진한 실적으로 인해 생산량을 줄이거나 공장을 가동 중단하는 등 자구책 마련에 나선 바 있다. 한화솔루션 규셀부문(한화규셀)은 지난해 12월 충북 음성공장 가동을

전면 중단했다. 이로 인해 국내 모듈 생산 능력은 6.2GW(기가와트)에서 2.7GW로 축소됐다. 또한 희망퇴직 접수를 시작하는 등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에 돌입하는 등 어려운 상황을 보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정부의 정책도 국내 업계에 이익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 정부는 오는 6월부터 동남아시아를 통해 들어오는 중국산 태양광 제품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중국산 태양광 제품이 미국에 판매될 수 있는 경로가 차단돼 국내 기업에 기회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은 "중국의 생산과잉이 국제 가격과 생산 질서를 왜곡하고 있다"며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중국의 카운터파트를 압박할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다만 6월 이전까지 유입되는 관세 회

피 물량을 고려하면, 실적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시기는 다소 늦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에 태양광 모듈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들은 반덤핑 관세 부과로 인해 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다만 제도적인 변화에 따라 변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 말했다.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보조금도 태양광 산업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화솔루션이 지난해 영업이익에 반영한 AMPC(첨단 제조 생산 세액 공제)는 2000억 원 규모다. 한화솔루션은 올해 설비투자액(CAPEX) 3조2000억원 중 2조6000억원을 태양광에 투자한다. 향후 미국 태양광 공장 가동률이 높아지면 5000억~6000억 원의 AMPC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HD현대에너지솔루션은 미국법인의 영업량 강화를 통해 미국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LG이노텍, 라이다 탐지거리 3배 늘린다

ADAS용 핵심부품으로 주목 받아
기상악화 시 거리 줄어드는 한계 해결
최대 250m 떨어진 물체 감지 가능

LG이노텍이 7일 기상 악화 시 탐지 거리를 기존 대비 3배 늘린 '고성능 라이다'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라이다는 거리를 측정하는 센싱 부품으로, 적외선 광선을 물체에 쏘고 되돌아오는 시간을 측정해 대상의 입체감을 감지한다. 자율주행 단계 고도화로 차량 1대 당 필요한 라이다 개수가 4배가량 증가하고 있어 ADAS용 핵심 부품으로 주목받고 있다.

LG이노텍은 눈, 안개 등 기상 악화 시 빛의 산란으로 인해 탐지 거리가 줄



LG이노텍이 개발한 ADAS용 센싱 핵심 부품인 '고성능 라이다(LiDAR)'. /LG이노텍

어드는 한계를 독자 기술로 해결한 '고성능 라이다'를 개발했다
최대 250m 떨어진 물체까지 감지가

가능해 기상 악화 시 탐지 성능을 업계 최고 수준인 기존 제품 대비 3배 증가시켰다.

감지 거리가 늘면 제동 거리를 그만큼 더 확보할 수 있어 빠른 속도로 주행이 가능하다. 가시거리 2m인 안개 상황에서 기존 제품을 탑재한 자율주행 차량은 50km/h 속도까지 주행이 가능한 반면, LG이노텍의 '고성능 라이다'를 탑재한 자율주행 차량은 최대 90km/h의 속도로 주행할 수 있다.

LG이노텍은 일반적으로 라이다에 사용되던 근적외선 대신 단파장 적외선을 적용했다. 단파장 적외선은 근적외선 대비 파장이 길어 빛의 산란에 따른 영향을 적게 받는다. /김서현 기자 seoh@

네이버, 동네슈퍼 장보면 2시간 내 배송

리테일엔인사이트와 제휴

네이버가 지역 마트 플랫폼 서비스 '토마토'를 운영하는 리테일엔인사이트와 제휴를 통해 '동네슈퍼 장보기' 서비스를 오픈했다고 7일 밝혔다.

'동네슈퍼 장보기'는 상품을 주문하면 주문자 주소를 기반으로 가까운 지역 마트에서 2시간 내외로 배송해주는 서비스다. 신선식품 등 다양한 식자재와 먹거리를 비롯해, 생활용품, 가전제품까지 배송이 가능하며, 마트당 수천 개의 상품 DB를 가지고 있다.

이용자가 네이버 장보기를 통해 주문하면 리테일엔인사이트의 동네슈퍼 주문중개 서비스인 '토마토'와 API로 연동돼 주문이 접수되고, 지역 마트의 인

프라로 배송이 되는 구조다. 서울, 경기, 경북, 대구 지역의 137개 매장 중심으로 '동네슈퍼 장보기' 서비스가 시작되며, 올해 내 지역 마트 입점 수가 전국 400개로 확대된다. 리테일엔인사이트가 2000여 개 지역 마트와 협업하고 있는 만큼 향후에는 보다 촘촘한 배송망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네이버는 '동네시장 장보기'를 통해 전통시장과 협업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역 마트 상인들의 디지털 전환을 다방면으로 돕는다는 계획이다. 매출연동 수수료를 1년간 면제하며, 지역 마트만의 특색이 담긴 쇼퍼라이브 숏클립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는 한편, 지자체와 협업 프로모션도 연계하며 단골 고객 유치를 돕는다. /김서현 기자

LG U+, 반려견 동반 제주여행 상품 완판

"반려견 동반 전세기 정규화 검토"

LG유플러스는 반려가구 커뮤니티 플랫폼 '포동'을 통해 선보인 반려견 동반 제주여행 전세기 상품 '포동 전세기'가 완판(완전 판매)됐다고 7일 밝혔다.

LG유플러스가 제주항공, 한국관광공사와 손잡고 지난 달 27일 선보인 반려견 동반 김포-제주 왕복 항공 상품 '포동 전세기'는 보호자 2인과 반려견 1마리를 포함해 총 3석으로 구성된 패키지다.

포동 전세기의 가장 큰 장점은 기내에서 반려견의 눈치를 보지 않고 반려견의 바로 옆좌석에 동반 탑승할 수 있다는 점이다. 탑승객들은 "지금까지는 반려견과 비행기 탑승 시 좌석 아래 구석에 놓아야 했기 때문에 수하물 취급을 당하는 느낌이었다"며 "옆에 앉은 반려견과 눈을 마주치며 여행하니 정말

로 한 가족이 된 기분"이라고 말했다.

LG유플러스는 포동 전세기 상품을 판매하는 기간 동안 비상상황 시 반려견에 대한 대처 방식 등에 대한 고객 문의가 많았던 점을 고려해 안전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했으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크고 작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안전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포공항 국내선 여객터미널 근처 녹지대에 마련한 '펫파크(Pet Park)'에서 진행한 '댕댕 유치원 현장학습' 콘셉트의 프로그램도 높은 인기를 끌었다. 반려견이 항공기에 탑승하고 내리는 여정을 유치원에 입학해 친구들과 함께 소풍을 떠나는 과정에 빗대어 기획한 프로그램이다. 모자, 케이프 등 선물을 전달하며 입학식을 진행하고, 다양한 포토 스폿(Spot)을 마련해 기념 촬영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5일 포동 전세기 탑승객들이 김포공항 국내선 카운터에서 포동 전세기 탑승 수속을 밟고 있다. /LGU+

염상필 LG유플러스 펫플랫폼트라이브 리드(상무)는 "이번 포동 전세기를 이용한 고객의 만족도가 높은 점을 확인하게 되어 반려견 동반 전세기 항공 상품 정규화를 검토하고 있다"며, "포동 전세기를 시작으로 반려동물 동반 여행의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 반려견을 키우는 반려인들에게 차별적 고객가치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삼성전자, 일체형 PC '올인원 프로' 공개

22일부터 본격 판매

삼성전자는 일체형 PC '삼성 올인원 프로(Pro)'를 8일 삼성닷컴에서 공개하고, 구매 사전 알림 신청을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본격적인 판매는 22일부터 시작한다.

삼성 올인원 프로는 울트라 슬림 디자인에 6.5mm 두께의 얇은 스탠드를 적용해, 공간을 더 넓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메탈 소재를 활용한 고급스러운 그레이 색상이 본체, 무선 키보드, 마우스에 적용돼 일체감 있는 디자인이 특징이다.

이번 신제품에는 최신 인텔 코어 울트라 프로세서가 탑재됐으며, 전자 대비 약 13% 넓어진 68.6cm의 4K 디스플레이와 돌비 애트모스의 3D 사운드 스피커는 게임이나 영상 몰입도를 더 높여준다.

무선키보드의 '코파일럿 키'는 마이크로소프트의 AI 서비스 '코파일럿'을 즉시 실행해 문서요약, 이미지 생성 등 다양한 인공지능(AI) 기능을 쉽고 빠르게 사용할 수 있다.

삼성 올인원 프로는 갤럭시 제품과의 연결도 지원한다. 갤럭시 스마트폰과 연결하면, 스마트폰의 고화질 카메라를 PC 웹캠으로 사용할 수 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AI서비스 '코파일럿'을 활용하면, 간단한 채팅 명령을 통해 PC와 연결된 갤럭시 스마트폰에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

삼성 올인원 프로 가격은 199만원부터 시작한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삼성 올인원 Pro는 일체감 있는 디자인과 향상된 성능으로 학습과 업무, 취미 등 다양한 일상에서 활용 가능한 올인원 PC"라고 설명했다. /구남영 기자